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¹⁸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 서서 ¹⁹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²⁰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²¹백성은 멀리 서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20:18-21)

사람의 속(*internal*)은 천국 빛 안에 있고, 사람의 겉(*external*)은 세상 빛 안에 있기 때문인데, 사람의 영(*spirit*)이나 혼(*soul*)은 천국에, 그의 몸(*body*)은 세상에 있다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천국은 세상보다 신성(*the Divine*)에 더 가깝습니다. 천국은 주님

의 신성이 다스리시며, 주님의 신성은 모든 것 안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AC.8918)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918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the internal of man is in the light of heaven, and his external is in the light of the world; or what is the same, the soul or spirit of man is in heaven, but his body in the world. Heaven is nearer to the Divine than the world, because in heaven the Divine of the Lord reigns, and is the all in all.

이는 오늘 본문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불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중 ‘그들이 멀리 서서’(And they stood afar off)에 관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의 내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의미로 볼 때,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열 가지 계명을 뜻합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는 말씀 전체의 진리들이 집약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것은 영적 교회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종교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수한 종교의 가르침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으며, 그 진리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햇빛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빛과 같이 나타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백열전구 불빛같이, 어떤 이에게는 등잔불 불빛같이 희미하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열기이시며, 그 열기에서 나오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열기와 빛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주

님에 대한 사랑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믿는 종교가 다르고, 종파가 다르며, 또 같은 종파 안에서도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은 그래서입니다. 즉 각자에게 있는 사랑의 특성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 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거듭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디다. 대신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나타나셨습디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진리를, 번개는 진리와 함께 있는 선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와 산도 같은 뜻입니다. 나팔 소리는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를, 산은 선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로 덮인 산이 보이는 것은 영적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을 동반한 진리로 오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산은 왜 연기 속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연기는 말씀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이 연기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통해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보내 주실 때,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춰 진리의 수위를 조절, 그것을 글자의 뜻을 통해 밝혀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말씀 겉 글자의 뜻이라는 것은 매우 어둡고, 불확실한 진리입니다.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글자의 뜻을 구름 또는 연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글자의 뜻이라도 읽

는 사람에 따라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깨닫는 진리는 어두운 구름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밝게 빛나는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진리는 어떻습니까? 연기와 같이 어둡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이 아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이란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어둡다는 것은 그들의 진리가 의지 안에 있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를 입으로만 말할 뿐, 뜻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에 대해 ‘**그들이 불 때에 떨어져 멀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로 인해 떨어져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

출20:18-21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불평했다, 즉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순수한 진리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모세가 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주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진리를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인간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특성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형 안에 내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내적 진리가 들어있는 상태가 바로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 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로 표상되는 진리, 즉 중재하는 진리를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인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자이시면서도 공공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마침 우리 교회의 책 중에 계시록의 내적 의미를 설명한 책이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관심을 보여 ‘계시록 해설’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이 어떻다든가 하는 말이 전혀 없던 중 다른 분을 통해 그의 생각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계시록 해설을 읽어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아주 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를 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한 것이나, ‘계시록 해설을 읽어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나 결국 같은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게 모세를 보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에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통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같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주님께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즉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경우이며, 그러므로 그들의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순간 영적 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주님에 대한 단순한 두려움에서 거룩한 경외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순간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을 향해 한 단계 올라섭니다. 즉 단순한 공포심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무서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까? 모세는 그 해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

출20:18-21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여 범죄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 나라’.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님을 경외할 수 없고, 죄에서 멀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끝으로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진리를 표상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다는 말은 주님과 영적 교회의 사람들 사이에 중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곧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광명이라 하지 않고 흑암이라 한 것인데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상되는 영적 교회 사람들이 내적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글자로 표현된 진리만 알고 있을 뿐 그 속에 내적인 것이 있

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 짐승을 잡고 피 뿌리고 하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그런 행위 하나하나 안에는 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계신 곳은 흑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리를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내면 상태에 따라 그만큼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연기 속에서 봤으며, 또 흑암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의 외적인 것만 알 뿐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적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심은’

에도 이 사회에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외적인 것만 알 뿐 내적인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참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때그때 취향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판단 없이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산에서 멀리 있다’ 표현합니다.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내적 진리를 안다 자부하면서도 정작 진리에 따라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만족, 행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에 따라 살려고 애는 쓰는데 뜻대로 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

늘 20절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시험에서 떨치고 일어설 것이며, 다시는 범죄 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 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24:31)

아멘

원본

2017-06-2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27(D6)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